

이성해 대광위원장, “광역버스 출퇴근길, 조속한 불편해소 만전”

- 30일 광역버스 혼잡 노선 현장 찾아 출퇴근길 방역·안전운행 당부 -

-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대광위) 위원장은 1월 30일(월) ‘용인 M4101번 노선’ 정류소를 찾아 출퇴근길 혼잡 상황을 점검하였다.
 - 이번 점검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혼잡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 시 탄력적 증차 등을 통해 광역버스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행·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-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“해당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 만차로 인한 무정차 통과가 최소 3회 ~ 최대 5회 발생하는 노선으로서 승객이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2층 전기버스 조기 투입과 필요한 경우 전세버스 추가 운행 등이 필요하다”라고 당부하는 한편,
 -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입석문제 전면 해소를 위해 “출퇴근 시간대 탄력적 증차 등 광역버스 공급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 - 이어, 광역버스를 탑승하여 마스크 비치, 승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면서, “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으나, 대중교통 등은 제외대상이므로 혼선이 없도록 안내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끝으로, 이 위원장은 “갑작스러운 한파로 도로에 눈이나 결빙으로 인한 비상상황이 발생 시 도로통행 및 교통상황의 신속한 확인을 통하여 안전 운행에 적극 노력해달라”라고 주문하였다.

2023. 1. 30.

국토교통부 대변인